

# 층간소음 민원 10년 새 4.8배 급증

## ‘정부부처 내놓았던 정책은 제자리서 맴돌아’ 지적 조오섭 의원 “인·허가시 심의 포함 등 대책 시급”

여수에서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부처들이 내놓았던 정책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이 국토부·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1단계 전화상담

민원 접수 현황은 2012년 8천795건에서 2020년 4만2천250건으로 10년 새 4.8배나 급증했다.

2단계 현장진단 민원 접수도 2012년 1천829건에서 2020년 1만2천139건으로 6.6배 이상 늘어났다.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 4만598건(67.6%) ▲망치질 2천588건(4.3%) ▲기구 2천224건(3.7%) ▲문 개폐 1천184건(2%) ▲가전제품 1천699건(2.8%) ▲악기 927건(1.5%)

▲기타 1만841건(18.1%)으로 확인됐다.

국토부·환경부 등 정부부처들은 지난해 6월 층간소음을 경감하기 위한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발표했지만 성능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은 올해 6월에 시작해 연말이 돼야 끝날 예정이다.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최근에서야 발의돼 상임위원 국회위에 회부된 상태다.

또 실생활 충격원과 유사성, 사람의 청각 민감도 등을 고려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기준을 반영한 국가표준(KS) 개정도 아직까지 완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 이전에 층간소음을 방지한 설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시 층간소음 방지 설계의 타당성을 심의 항목에 포함시키는 건설사 유인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오섭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끔찍한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층간소음 방지는 결국 비용과의 싸움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층간소음방지 인증구조를 활용하는데 머물고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 동구, 국가안전진단 민·관 합동점검

광주 동구가 관내 위험 요인이 예상되는 시설물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28일 동구에 따르면 ‘2021년 국가안전진단’에 따라 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3개 반 83명의 점검반이 사전조사를 진행, 71개 대상(공공 12개소·민간 59개소) 시설물을 확정했다.

각 분야별로 오는 10월29일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건축시설(노후 공동주택) 4개소 ▲보건·복지분야(숙박업소, 목욕장) 7개소 ▲생활·여가시설 5개소 ▲산업공사업 4개소 ▲교통시설(도로·교량) 4개소 ▲기타 급경사·산사태 지역 47개소 등이다.

특히 육안 점검의 한계가 있는 교량, 하천,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 등 인공지능(AI)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점검한다. /최명진기자



“우리옷 한복 체험해요” 28일 오전 광주 북구 신원초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한복 체험교실’에 참가한 5학년 학생들이 강사의 지도로 착용법을 배우고 있다. /김애리기자

## 화순전대병원, 암데이터 유전체분석 플랫폼 구축

### 엔젠바이오와 협약...150억 들여 첨단 연구시설·장비 마련

화순전대병원이 개원 이래 17년간 축적한 고순도 암 데이터의 유전체 분석 플랫폼을 구축한다.

화순전대병원은 최근 정밀진단 플랫폼 전문기업 엔젠바이오와 클라우드 기반 유전체 분석 플랫폼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정밀의료 산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엔젠바이오는 화순전대병원의 암데이터 분석과 정밀의료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임상 유전체 분석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플랫폼은 17년간 축적해온 화순전대병원의 방대한 암 데이터에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한다. 나아가 임상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가 가능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개발한다.

화순전대병원은 이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암 진단 치료법,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산업화, 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앞서 화순전대병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150억원 규모의 ‘첨단정밀의료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는 환자마다 다른 유전적·환경적 요인과 질병경력·생활습관 등을 사전에 파악해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하고, 질병

의 예측·예방까지 계획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3년까지 150억원을 투입해 정밀의료 위한 첨단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한다.

신명근 화순전대병원장은 “이번 계약으로 그동안 축적한 유전체 빅데이터 기술을 정밀의료 산업화를 위한 플랫폼에 적용하게 됐다”며 “17년간 축적한 고순도 암 및 임상 데이터의 분석으로 다양한 정밀의료 솔루션을 개발해 차세대 정밀의료 서비스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순전대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암치유 병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수기자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6 해질 18:20  
달돋 23:34 달질 13:54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50 (우산 챙기세요)
- 빨래 30 (잘 마르지 않아요)
- 세차 20 (다음으로 미루세요)
- 운동 60 (실내운동 즐겨요)

지역	강수확률(%)	지역	만조	간조
광주	30-60	목포	06:38	11:45
목포	30-30	순천	00:30	07:09
순천	60-60	여수	14:27	20:55
여수	60-60			

**서해 남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남-남서/0.5-1.0m  
    면바다 남-남서/1.0-2.0m

오후 앞바다 북-북동/0.5-1.0m  
    면바다 동-남동/1.5-2.5m

**남해 서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남-남서/0.5-1.0m  
    면바다 남-남서/1.0-2.0m

오후 앞바다 남-남서/0.5-1.0m  
    면바다 남-남/1.0-2.0m

▶ 날씨안내 : 국민안전처

## 무등산국립공원 역사 개화...10월말 절정

무등산국립공원 곳곳에 가을을 알리는 역사가 개화했다.

28일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따르면 백마능선-역새평전 일대에서 피어난 역새는 10월 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안양산 정상부에서 능선을 따라 넓게 펼쳐진 백마능선의 역새는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가을철에만 만날 수 있는 무등산의 절경으로 꼽힌다.

역새 감상이 가능한 주요 탐방 코스는 무등산국립공원 수만탐방 지원센터-낙타봉-안양산 코스(5km, 약 3시간)와 들국화마을-안양산 코스(3.5km, 약 2시간) 등이 있다.

역새평전은 북산 정상부에서 누에봉 사이에 위치한다. 키가 큰 역새 사이로 탐방로가 있으며, 약 2km 일대에 넓게 분포돼 있다.

주요 탐방 코스는 용강마을(화순군 이서면 인계리)-시무지기 폭포-역새평전 코스(6.5km, 약 4시간)다. /최명진기자

## 광산구, 월봉서원 등 문화재청 공모 선정

광주 광산구는 문화재청 '2022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에서 총 5개 사업이 선정돼 국·시비 총 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모에서 선정된 광산구 사업은 ▲향교·서원 문화재활용사업(2건) ▲고택·종가집 활용사업 ▲생생 문화재사업 ▲ICT를 활용한 실감콘텐츠 개발지원사업 등이다.

월봉서원은 9년, 무양서원은 7년, 고택활용은 3년 연속 선정이다.

국가 문화재인 신창동 유적을 활용 한 '광주 신창동 유적 타임캡슐을 열어라'와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한 실감형 체험 플랫폼인 '메타버스 타고 월봉유랑하자'가 이번 공모에서 신규로 포함됐다.

특히 ICT 실감콘텐츠는 가상현실 등을 활용해 월봉서원을 메타버스로 구현, 새로운 문화재 향유 방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13개 사업만 선정됐고, 광주에서는 광산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고훈석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정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불거리, 살거리, 먹거리 가득한

# 무안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4,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무안군

**문의 :** 062)650-2099